

『빌리 버드』의 퀴어 정치학: 랑시에르의 ‘문학의 정치’와 벤야민의 ‘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김수연

단독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표는 랑시에르의 정치철학과 벤야민의 폭력론을 활용해 『빌리 버드』의 퀴어성을 밝히는 것이다. 멜빌의 중편소설은 정신분석학이나 19세기 미국 사회와 연결되어 다각도의 관점에서 연구됐으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동성애적 욕망에 관한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퀴어를 성적 지향에 국한된 것이 아닌 “공동체, 섹슈얼리티, 체현, 활동의 비규범적 조직과 논리”라는 넓은 의미로 봄으로써, 본 글은 『빌리 버드』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퀴어 욕망을 드러내는 다양한 방식에 주목한다. 우선 본문의 첫 부분에서 자크 랑시에르의 독특한 정치철학에 대해 개괄한 후, 두 번째 부분에서 ‘불화’, ‘오산’, ‘감성의 분할’이란 랑시에르의 개념을 통해 퀴어 욕망이 가시화되는 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정치를 대중의 합의가 아닌 ‘몹 없는 자’들의 불화와 오해로 보는 랑시에르의 사상이 『빌리 버드』 속 몹을 갖지 못한 동성애 욕망이 몹을 주장하는 퀴어한 방식에 잘 구현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멜빌 소설 속 폭력에 관한 기존비평에 유토피아 논의를 더하고자 한다. 즉 기

* 이 연구는 2020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존 논의가 비어 선장의 폭력을 ‘법 정립적, 법 보존적 폭력’으로 규정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 글에서는 빌리의 비극적 죽음이 결혼의 은유를 통해 신적 폭력으로 변모하며 벤야민식 (퀴어) 유토피아를 엿보게 해줌을 주장하려 한다.

주제어: 『빌리 버드』, 퀴어, 자끄 랑시에르, 발터 벤야민, 폭력

1. 서론

1924년 출간된 멜빌(Herman Melville, 1819-1891)의 유고작 『선원 빌리 버드: 내부 이야기』 (*Billy Budd*, 이하 『빌리 버드』)는 영국 전함 벨리포턴트 호(*Bellipotent*)를 배경으로 선장 비어(Vere), 선임위병 부사관 클래가트(Claggart), 앞돛대 망루 선원이자 ‘미남 선원’으로 칭송받는 빌리 버드를 통해 욕망과 폭력, 군법과 양심 등의 다양하고도 목직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비문학 전공자 독자를 위해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벨리포턴트 호에서 치안을 맡은 클래가트는 선하고 아름다운 스물한 살의 빌리에게 은밀한 반감을 품고 빌리가 선상 반란을 도모했다고 선장에게 거짓으로 고한다. 역시 빌리를 눈여겨보고 있던 선장은 클래가트와 빌리를 선장실로 부르고, 당황하면 말을 더듬는 빌리는 터무니없는 모함에 말을 뱉지 못하고 클래가트의 이마를 내려쳐 그를 즉사시킨다. 빌리의 무고를 알지만 상관을 죽인 죄 역시 선장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비어는 규율과 양심 사이에서 고뇌하다 즉결심판을 열어 빌리를 교수형에 처한다. 1797년 절정에 이른 일련의 선상 반란을 활용하기 위해 18세기 말 영국 전함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빌리 버드』는 멜빌이 평생 천착한 19세기 중후반 미국 자본주의화의 폐해, 인간애에 바탕을 둔 민주적 지도자에 대한 갈망, 잭슨 시대 이후 심화한 지배적 남성성에 대한 비판을 집대성하고 있다. 올해에도 이 소설에 관한 논문이 나왔을 정도로 국내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었지만, 작품의 핵심 중 하나라 할 동성애적 욕망은 최근에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폭력이란

주제 역시 클레가트가 치안이란 이름으로 빌리에게 가하는 폭력, 빌리가 클레가트를 죽이는 폭력, 선장이 빌리에게 내리는 교수형이란 폭력으로 작품의 중심사건을 이룸에도 독자적으로 다루어진 적은 생각보다 드물다.

본 글은 『빌리 버드』에 나타난 퀴어 욕망과 폭력의 양상을 각각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의 정치철학과 벤야민(Walter Benjamin)의 폭력론에 비취 분석함으로써 기존비평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랑시에르에 대해 소개하자면 랑시에르는 오늘날 대륙철학자 중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로, 2008년 첫 번역본이 국내에서 나온 후 올해까지 15권 이상의 저서가 번역·출간되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960년대 파리고등사범학교에서 알튀세의 제자로 착실히 배워나가던 랑시에르는 68 혁명을 계기로 지식인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던 스승과 결별한다.¹⁾ 그리고 1969년 파리 8대학의 교수로 부임한 후 지금까지 “모든 지능은 평등하다”(2016; 189)는 급진적 평등 원리에 기반한 독특하고도 통찰력 넘치는 정치철학·교육철학·미학적 사고를 펼치고 있다. 필자 역시 랑시에르의 저작 중 가장 유명한 『무지한 스승』으로 그의 사상에 입문했지만, 직관을 거스르며 정치와 평등과 민중의 의미를 철저히 재정의 하도록 추구하고 있는 저서는 역시 『불화: 정치와 철학』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론의 첫 부분에서 『불화』에 등장하는 랑시에르 사상의 기본개념, ‘불화’(disagreement)로서의 정치, ‘치안’(police)으로서의 사회 질서, 감각을 기준으로 공동체의 부분들(parts)에게 상징적 ‘몫’(part)을 배분하는 체계인 ‘감성의 분할’을 먼저 소개하겠다. 이어 문학에 대한 랑시에르의 다른 저서로 분석의 폭을 넓혀가며 어떻게 『빌리 버드』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즉 지각되는 ‘몫’을 가지지 못한 퀴어 욕망이 사랑이란 평등 전에 아래 이성에 질서를 가로지르며 ‘감성의 분할’을 재편하는지 밝히려 한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벤야민의 폭력론에 초점을 맞춰 『빌리 버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폭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기존비평 중 특히 정진만과 한광택의 논문이 벤야민을 통해 멜빌 소설 속 폭력의 의의를 다채롭게 조명하고 있다. 전자의 논문은 “법과 폭력의 친밀성”(789)을 소설의 중심 주제로 보고 프로이트, 벤야민, 데리다, 지젝의 이론을 활용해 작품을 밀도 있게 분석하지만, 벤야민이 구별하는 두 폭력 중 법적/신화

적 폭력에 집중할 뿐 신적/혁명적 폭력에까지 나아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아감벤(Giorgio Agamben)이 설명하듯, 벤야민의 목표는 “완전히 법 ‘바깥에’ 그리고 법 ‘저편에’ 자리하면서 그 자체로 법 정립적 폭력과 법 보존적 폭력의 변증법을 폭발시켜 버릴 수 있는 폭력(Gewalt, 권력)의 가능성을 확증하는 것”(105)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광택의 논문은 빌리의 폭력을 “지극히 예외적인 폭력”(44)이라고 정확히 지적하며 신적/혁명적 폭력에 연결하고 있으나, 벤야민이 혁명 끝에 도래한다고 역설하는 유토피아의 가능성보다 빌리의 죽음이 초래한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춘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기존비평에 더해 비어와 클래가트, 빌리가 구현하는 폭력을 보다 면밀히 구별하되, 어떻게 클래가트와 비어 선장이 욕망 대신 선택한 법적/신화적 폭력이 빌리의 신적/혁명적 폭력에 의해 단죄되며 쿼어 유토피아의 순간을 엿보게 하는지 살펴보겠다.

버틀러(Judith Butler)와 더불어 쿼어 이론의 창시자로 꼽히는 세즈윅(Eve Sedgwick)이 공언하듯, 19세기 말 탄생한 동성에 정체성은 동성애자를 “소수화”하는 동시에 “보편화”하는 지속적인 이분법의 생성과 해체에 기반해 이뤄지고 또 탄압받아 왔다(92). 『빌리 버드』는 바로 19세기 내내 진행된 이 소수화와 보편화 과정의 빼어난 문학적 구현으로, 성 소수자로 특정할 수 있는 인물인 클래가트와, 빌리를 중심으로 배 전체에 흐르는 보편적 동성에 욕망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세즈윅의 주장이다(92). 이 글에서는 정체성으로서의 동성애가 확립되기 이전의 멜빌 소설에 나타난 동성사회적·동성애적 욕망을 ‘쿼어’라고 총칭하되, 쿼어를 성 지향성이나 섹슈얼리티에 국한된 것이 아닌 “공동체, 구현, 활동의 비규범적 논리 및 조직방식”(필자 강조, 6)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는 할버스탐(Judith/Jack Halberstam)의 정의를 따르겠다. 『빌리 버드』를 관통하는 쿼어 욕망을 “뭉 없는 이들의 뭉의 설립에 의해 지배의 자연적 질서가 중단”(『불화』 39)되는 랑시에르식 정치를 함의한 것으로, 또 빌리의 죽음을 법적/신화적 폭력과 신적/혁명적 폭력의 이중적 의미를 지닌 쿼어한 것으로 읽음으로써 멜빌 소설의 쿼어 정치학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랑시에르의 『불화: 정치와 철학』

이 책의 서문에서 랑시에르가 가장 먼저 뒤집으려 하는 정치에 관한 상식은 “정치에 고유한 작업은... 공정한 배분과 다를 바 없노라는 것”(14)이다.²⁾ 정치‘철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내재한 “아포리아나 당혹”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랑시에르가 파악하는 정치에 고유한 당혹스러움은 “공동체의 부분들 사이의 분배”를 결정하는 평등 원리가 당혹스럽게도 평등하지 않다는 것, 즉 “어떻게 평등이 평등과 불평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16). ‘불화’로 번역되는 프랑스어 *la mésentente*는 따라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갈등이 아닌,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되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다. 랑시에르가 정치를 ‘불화’라고 부르는 이유 역시 정치철학이 플라톤 이후로 모두가 동의하는 평등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즉 “정의는 각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긴 불화의 기록”(19)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화’로서의 정치는 전체/공동체의 것들을 부분들에게 적절히 배분하고 이윤과 손실을 맞춰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공동체의 부분들에 대한 셈이 “항상 잘못된 셈, 이중적인 셈이거나 계산착오”(31)라는 것을 깨달을 때 생겨난다. 이러한 근본적 ‘잘못’은 ‘데모스’(the demos) 개념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데모스는 “성질 없는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무것에도 참여하지 않는’(아무런 몫도 지니지 않은) 이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35)을 뜻하는데, 그 명칭 때문에 ‘전체’와 동일시되지만, 사실 지배질서에 참여하지 못하고 고유의 ‘몫’도 가지지 못했기에 부분들의 합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집단이다. 즉 “민중은 항상 자기 자신보다 더 많은 동시에 더 적”(37)은 오산의 상징이다.³⁾

이렇게 몫 없는 민중이 지배적 산술에 개입해 몫을 가지려 할 때, 평등이 불평등을 동시에 품은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나와 아무나의 평등”(44)임을 깨달을 때, 그래서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지배의 논리를 이러한 평등의 효과가 가로지를 때”(46) 비로소 정치가 출현하게 된다. 그렇다면 ‘몫’은 어떻게 (항상 잘못) 분배되는가? 지배층

과 데모스는 어떻게 나누어지며 불평등한 사회 질서를 구성하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랑시에르의 답이 바로 ‘치안’(police)이다. 치안은 사회의 부분들, 신체들, 기능들, 장소들에 대한 “상징적 분배”(53)이자 그 분배의 “정당화 체계”(61)를 뜻한다. 치안의 일차적 임무는 신체를 두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 즉 통치행위에 참여하기 위한 언어를 구사하는 “로고스적 동물”과, 말을 하기는 하지만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감각적 수준에 머무르는 “음성적 동물”(53)로 분리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상징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짜인 사회 속에서 ‘음성적 동물’은 로고스를 결여해 소음만 내는 존재, 존재는 하되 인정은 못 받는 ‘몹 없는 자’(the part with no part)로 잘못 썬해진다. 따라서 랑시에르에게 정치란 권력투쟁이나 유지와 아무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몹을 임의로 분배하는 치안에 도전하고 그것으로부터 단절되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적 활동은 “어떤 신체를 그것에 배정된 장소로부터 이동시키거나 그 장소의 용도를 변경”해서 “보일만 한 장소를 갖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들고... 소음으로만 들렸던 것을 담론으로 알아듣게 만드는 것”(63)이다. 정치는 썬해지지 않은 자들에게 ‘계쟁’⁴⁾의 무대를 만들어줌으로써 치안의 질서에 맞서 끊임없이 평등 원리를 입증하려 분투한다.

랑시에르의 ‘치안’이 언어와 소음을 구별하고, 신체, 장소, 기능들을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인 것으로 구별한다는 것은 이 분배가 로고스보다 아이스테시스(*Aisthesis*, 감각/지각)를 바탕으로 이뤄짐을, 즉 치안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기반한 ‘감각적 분배’임을 뜻한다. 이것을 랑시에르는 ‘감성의 분할’(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이라고 부르는데, 이 개념을 통해 정치와 아이스테시스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는 그만의 독창적 정치철학과 미학을 세우고 있다.⁵⁾ 치안이 ‘감성의 분할’을 정당화하는 체계고 정치가 반대로 그러한 분할을 지속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실천이라면, 아이스테시스가 본 논문에 특히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분리된 표현 체제들을 서로 소통시키는 것”(103), 즉 문학적 “은유”(102)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랑시에르식 정치가 권력 싸움이 아닌 평등 입증을 위한 계쟁이라면, 법정에서 흔히 쓰이는 논변(‘피고는 악마입니다’)은 어떤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다른 것에 빗대어 말하는 은유와 놀랄 만

큼 남아있다. 랑시에르의 말을 빌자면 로고스뿐 아니라 “로고스를 아이스테시스와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증명의 논리는 또한 불가분하게 드러냄의 감성학(미학)”(103)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학이야말로 다양한 은유와 경쟁의 장을 통해서 서로 다른 세상을 부딪치게 하고, ‘감성의 분할’을 재편하며, 소음에 머물렀던 것을 담론으로 들리게 하는 탁월한 정치적 실천이라 하겠다. 이제까지 정리한 개념을 바탕으로 『빌리 버드』의 퀴어 정치학을 ‘감성의 분할,’ 정치적 불화에 상응하는 ‘문학적 오해,’ 그리고 평등 원리에 입각한 ‘문학의 민주주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3-1. ‘미남 선원’과 감성의 분할

멜빌의 소설을 윤조원의 경계대로 “미개척의 거대한 자연에 맞서는 남성 인물들의 모험”(149) 정도로 알고 있던 독자라면 『빌리 버드』의 첫 장부터 수 페이지에 걸쳐 묘사되는 “미남 선원”(the Handsome Sailor, 3) 예찬에 어리둥절해질 것이다. 휴가 나온 구릿빛 선원들에 둘러싸여 못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 “우월한 인물”은 성좌의 별 중에서도 “적색거성”처럼 빛나며, “타고난 왕의 자연스러움”을 지녀 동료 선원들의 “자발적 충성”을 이끌어내는 자이다(3). ‘화자’는 오래전 리버풀에서 봤던 크고 균형 잡힌 체격의 미남 흑인 선원, 비단 손수건을 목에 두르고 링 귀걸이를 한 멋쟁이 선원을 떠올리며, “미남 선원”이란 “힘과 미모”를 겸비한 자로 “반반한 외모”와 “도덕적 성품”을 두루 갖춰야 함을 강조한다(4). 이어 화자는 또 다른 ‘미남 선원’의 예로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빌리 버드, “하늘색 눈을 가진 베이비 버드”(4)를 소개한다. 이 소설에 16번이나 등장하는 어구인 ‘미남 선원’은 따라서 한 개인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어떤 전형에 대한 은유며, 랑시에르의 표현을 빌자면 아이스테시스에 기반해 “분리된 표현 체제들을 서로 소통시키는 것,” “두 개의 관념을 연쇄하는 논변”처럼 “어떤 사물 안에서 다른 사물을 보게 만드는 은유”(『불화』 102)이다. 즉 ‘미남 선원’은 춤추며 짜인 전합의 규율과 위계에 의해 위치 지어진 수명계급, 불복종을 사형으로 다스

리는 지배적 질서에 종속된 ‘뭉 없는 자’인 동시에, 그 고결함으로 “자발적 충성”을 끌어내는 민주적 지도자, 나아가 위계에 상관없이 아름다움에 대한 평등한 욕망을 환기하는 감성학/미학적 존재다.

『문학의 정치』에서 랑시에르는 ‘감성의 분할’을 “시간들과 공간들, 자리들과 정체성들, 말과 소음,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등을 배분하고 재배분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정치가 “감성의 분할을 새롭게 구성하게 하고 새로운 대상들과 주체들을 공동 무대 위에 오르게 한다”고 주장한다(11). 이를 문학에 적용하면 문학의 정치란 감성의 분할에 “문학으로서 개입하는 것”(11)이며, 문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규정하는 감성의 분할 속에 개입하는 어떤 방식, 세계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되는 방식, 이 가시적인 것이 말해지는 방식”(16)에 다름 아니다.⁶⁾ 벨리포르트 호는 상징적 분배와 그것의 정당화 체계인 ‘치안’이 표면적으로 완벽히 작동하고 있는 곳으로, 선장, 당직사관, 다양한 하사관, 군목, 군의관, 포열 갑판 장교, 총기 장교, 선실 급사, 앞돛대 · 뒷돛대 · 선갑판 · 후갑판 수병 등이 계급에 따라 각기 다른 제복과 머리 모양, 무기, 자는 위치와 방식까지 할당받는 곳이다. 그러나 전함을 에워싼 선상 반란의 위협이 “빌리가 촉발하는 동성애적 에너지의 확산이 초래할 헤게모니적 이성애 질서에 대한 위협과 절묘하게 중첩”(윤조원 165)되듯, 멜빌 소설의 빼어난 정치성은 하나의 공간 안에 다른 공간들과 감각들을 가시화하며 기존 분할을 교란하고 ‘계쟁’의 무대를 세우는 데 있다. 한 치의 빈틈 없이 혼잡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전함의 단체생활 속에 입맞춤, 포옹, 불타는 시선, “부드러운 열망”(46), “은밀한[closeted] 대화”(73)가 서술되며 공/사, 질서/무질서, 언어/소음의 구분에 도전하고 각자의 ‘뭉’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어 선장이 소집한 즉결재판은 선상 반란을 예방하기 위한 공적 판단의 장인 동시에, 비어라는 인물의 내면에서 체화되는 치열한 계쟁의 장이다. 세즈워의 표현을 빌면, “한 남성[비어 선장]의 놀랍도록 특정한 감각적 욕구”(113)가 사회적 금기, 즉 치안의 질서에 맞서는 랑시에르식 정치 무대인 것이다.

3-2. 문학적 오해

『빌리 버드』가 은유를 통해 감성의 분할을 재구성하는 문학의 정치를 행하고 있다면, 클레가트는 보다 구체적으로 ‘문학적 오해’⁷⁾를 체현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랑시에르는 ‘정치적 불화’와 비슷하면서도 문학에 고유한 ‘문학적 오해’에 대해 상술하는데, ‘불화’와 ‘오해’가 모두 “날말들과 사물들 간의 합의된 비례 패러다임의 한 측면을 공격”(『문학의 정치』 67)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불화가 “계산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새로운 집단들을 설립하는 이름들, 언표들, 논증들과 증명들을 발명”하고 이어 “개체성의 형태들에 의해 합의의 체제적 논리[가] 신체들을 의미작용들과 결합”시킨다면, 문학적 오해는 “신체들과 의미작용 사이에 확립된 일치를 해체하는 새로운 개체성 형태들”을 창조한다(67). 정치적 불화가 몹 없던 익명자들의 이름을 공표하는 데모스의 주체화를 목표로 한다면, 문학적 오해는 “익명적 삶의 지각과 감각의 조직 안에서 언표 주체들을 해체”하며 “정치적 불화에 말없는 말의 이중적 무대를 대별시킨다”는 것이다(70).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우선 정치는 집단, 문학은 개체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말없는 말의 이중적 무대’는 말 없는 사물이나 풍경이 문학 작품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뜻이다. 또한 그 무대가 “이중적”인 이유는, 랑시에르가 극찬하는 플로베르 소설의 유창한 사물과 광경 묘사를 떠올려볼 때 첫째, “연설가들보다 더 능숙하게 공동 세계를 말하는 사물들의 무대,” 둘째 “실어증과 무감정 속으로 의식들을 이끌어 가는 사물들의 무대”로 두 가지 종류이기 때문이다(70). 문학적 오해는 이처럼 “초과적 의미의 무대와 결핍된 의미의 무대”(70)를 동시에 구축하며, 그 안에서 빚어진 오해 혹은 불일치를 바탕으로 신체를 의미작용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여러 평자가 지적해왔듯 클레가트란 인물의 핵심은 ‘알 수 없음’이다.⁸⁾ 처음 등장하는 8장부터 죽음을 맞는 19장까지, 클레가트는 “어떤 순수한 인식론적 극단성”(Sedgwick 96)을 상징하며 동성에 열망과 동성에 혐오를 횡단하지만 그 어떤 의미로도 고착되지 않는다. 뿔뿔이 난 남성 외모의 극도로 세심한 묘사(작고 예쁜 손, 튀어

나온 턱 빼고 그리스 조각 같은 말쑥한 얼굴, 세월이 흘러 변색한 대리석처럼 호박색이 깃든 창백한 피부, 그 피부를 돋보이게 눈썹까지 내려온 검은 곱슬머리, 골상학적으로 평균 이상의 지능을 암시하는 이마)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그의 초상화 그리기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23).⁹⁾ 외국인이고 범죄자라는 그의 과거에 대한 무수한 소문도 입증할 길이 없다. 화자는 여러 장(章)에 걸쳐 빌리를 모함한 클레가트의 사악함을 설명하지만, “저절로 생겨난 깊은 반감”(33), “타고난 타락”(34), “현명하고 냉정한 판단력[을 가진] 진정한 광인”(35), 빌리의 엄청난 아름다움에 대한 “질투”(36)는 사실 클레가트를 구제해주는 모순을 지닌다. ‘저절로 생긴’ ‘타고난’ 감정을 어찌겠는가. 이렇게 과잉된 클레가트의 ‘악’의 전시에 맞서 쿼어난 오해를 일으키는 말 없는 개체성의 무대들이 있다. 화자가 클레가트의 타락을 ‘분석’하며 슬쩍 흘리는 클레가트의 감성학/미학적 분별력과 절망,¹⁰⁾ 활기찬 바다의 하이페리온 신 같은 빌리를 본 클레가트의 “우울한 표정”과 “알 수 없이 차오르는 뜨거운 눈물”(46), 빌리가 저만치 지나갈 때 “황혼 녘 대장간 모루에서 나는 섬광처럼”(47) 순간 보랏빛으로 빛나는 클레가트의 눈은 들리지 않는 미시적인 것들을 드러나는 것들과 병치시키며 ‘오해’를 자아낸다. 이렇게 쿼어난 감각의 재조직을 통해 클레가트의 동성애적 신체가 질병과 타락이란 기존의 의미작용에 고정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3-3. 문학의 민주주의

클레가트가 ‘말없는 말의 이중적 무대’를 통해 신체와 의미, 사물과 낱말 사이의 합이 된 이성애 패러다임을 해체하고 문학적 오해의 작동방식을 보여주는 쿼이라면, 빌리는 아름다움과 선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이상, 욕망의 평등 전제를 입증하며 ‘문학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인물이다. 소설의 첫 장부터 ‘미남 선원’의 전형적 예로 등장하는 빌리는 “가톨릭 사제”(6), “보석”(7), “그리스 조각가가... 헤라클레스상에 새긴 평화롭고 선한 본성”(10)의 소유자, “세인트버나드 종 개”(11), “문맹의 나이트게일”(11),

“고결한 미개인”(12), “타락 이전 아담”(53), “신의 어린 양”(80) 등 실로 다채롭게 은유되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천상과 인간계와 자연과 사물을 접합시킨다. 그러나 랑시에르가 강조하듯 문학의 민주주의는 “사회적 조건들의 현실적인 혹은 가상적인 평준화”가 결코 아니며 “신체들과 낱말들, 말하는 방식, 행동방식과 존재방식 간의 관계로부터 규정된 질서와의... 상징적 단절”이다(필자 강조, 『문학의 정치』 22-23). 따라서 작품의 초반, 빌리가 벨리포르트 호로 징집되기 이전 속했던 상선 인권 호(*Rights-of-Man*)에서 선원들을 못살게 굴던 ‘붉은 수염’ 선원을 한 방에 때려눕히고 ‘행복한 가족의 중재자’로 칭송받았다면, 이러한 장면은 문학의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며 기존 질서의 강화에 가깝다.

빌리가 천사와 인간, 동물을 가로지르며 “공통 공간에서의 말의 효과들과 몸들의 위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모든 정당한 기초를 파괴”(『감성의 분할』 15)하는 것,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문체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클래가트를 죽인 이후다. 비어 선장이 “신의 천사가 때려죽였다! 그래도 천사는 교수형 당해야 한다”(59)고 표현하듯, 기존의 상징적 위치들, 즉 치안의 질서가 깨진 후에야 묵었던 퀴어 욕망이 가시화되고 나아가 “모든 사물들의 수동적 평등, 내재적 평등”(『감성의 분할』 73)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빌리의 죽음 장면에서 빌리의 승천, 비어 선장의 경직/탈기, 수병들의 합창, 바닷새의 진혼곡을 통해 민주주의에 기반한 퀴어 유토피아의 순간이 암시된다. 후반부에서 다시 살펴볼 이 장면 외에도 클래가트의 죽음 후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의문과 소요들이 있다. 사무장의 의심과 군목의 “이교도적 생각”(78) 및 입맞춤 행위, 비어의 고뇌와 화자의 “무지개”¹¹⁾에 관한 단상 등이 그 예다. 이렇게 ‘퀴어’하다고 할 동요의 장면들은 랑시에르가 문학의 “적출성 원리”라고 부르는 것—“알맞은 송신자로부터 출발하고 알맞은 경로로 알맞은 수신자에게 가는 말의 순환이 있기를 바라는 원리”(『감성의 분할』 75)—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며 모든 사물과 주제의 무차별적 평등을 환기한다.

4-1. 클레가트와 빌리: 법적 폭력 대 신적 폭력

이제 벤야민의 폭력론으로 이론의 틀을 옮겨 『빌리 버드』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다양하고도 귀여한 양상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폭력에 관한 벤야민의 생각은 「폭력비판론」에 잘 서술되어 있으나 그 독창적 의의를 집약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저서는 아감벤의 『예외상태』이다. 아감벤의 저서는 주지하다시피 예외상태가 “점점 더 예외적 조치 대신 통치술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구성하는 패러다임으로서의 본성을 드러내기까지 하고 있는”(23) 작금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법과 아노미(예외상태) 관계의 역사를 고찰하고 있으며, 특히 ‘예외상태’라는 용어를 처음 쓴 슈미트(Carl Schmitt)의 전통적 관점과 벤야민의 급진적 관점을 대비시키며 논의를 전개한다. 폭력/아노미/예외상태에 대한 두 사상가의 ‘불화’를 아주 간략히 요약하자면, 벤야민은 법 너머에 위치하며 (수단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순수’하고도 아노미적인 폭력이 있음을 보이려 하고, 슈미트는 “예외상태 속에서 그런 폭력은 바로 배제를 통해 법 안에 포섭되기 때문”에 “순수한 폭력, 즉 완전히 법 바깥에 있는 폭력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107)고 주장한다. 슈미트가 어떤 아노미 상황에서도 폭력을 법적 맥락 안에 두려는 데 반해, 벤야민은 예외상태에서 “법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115) 순수한 폭력이 존재함을, 즉 “법과 폭력의 연결망을 폭로하고 절단하며,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통치하거나 집행하는 폭력이 아니라 순수하게 작동하고 현현하는 폭력”(121)이 가능함을 보이려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을 벤야민은 법적/신화적 폭력과 구별되는 순수/신적/혁명적 폭력이라 부른다. 그리고 후자의 폭력에 의해 법이 마침내 “해방”될 때, 억압과 통치를 위한 법이 아닌 “궁리나 놀이의 임무”(124)를 띤 유토피아의 정의가 세워진다고 전망한다.

『빌리 버드』에서 우선 살펴보려는 한 쌍의 폭력, 클레가트와 빌리가 서로에게 가하는 폭력은 벤야민의 위 구별에 따르면 각각 법적/신화적 폭력과 순수/신적/혁명적 폭력을 매끄럽게 구현하고 있다. 벤야민이 「폭력비판론」에서 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폭력의 본질로 꼽는 것이 법을 만들고 또 보존하는 것인데, 바로 이 “법 정립적,”

“법 보존적” 폭력의 가장 “잔인무도한(unnatural) 결합”의 형태가 “치안”(police, 242)이다. 벤야민에 따르면 “치안의 법[은] 국가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으려는 실증적 목적이 법 제도를 통해 확보되지 않는 지점”을 가리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 “법적 상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무수한 경우에 ‘안보를 이유로’” 치안이 개입하고 맹목적인 폭력을 자행하게 된다(243). 법적 폭력을 신화적 폭력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가짜 이야기인 신화 속 폭력 역시 고대 그리스·로마 신들이 인간에게 그 힘과 권위를 과시하고자 휘두르는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폭력, 즉 법 정립적 폭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벨리포턴트 호의 “치안감”(23) 클레가트가 배의 안전을 핑계로 아무 근거 없이 빌리를 모함하는 행위는, 채울 수 없는 욕망의 대상인 빌리를 차라리 제거하고픈 정신분석학적이고 비극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치안이란 신화를 유지하려는 법적 폭력에 해당한다. 독일어 *Gewalt* 가 폭력뿐 아니라 합법적 권력, 물리력 등 모든 종류의 힘을 아우르는 개념인 만큼, 빌리를 괴롭히려는 클레가트의 크고 작은 계략 모두 법적 폭력이다.

반면 『빌리 버드』를 통틀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빌리의 살인은 순수/신적/혁명적 폭력을 통해 가장 생산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선장실에서의 대질 신문이 그러지는 19장에서 클레가트는 마주 서 있는 빌리에게 일부러 더 가까이 다가가 “최면을 걸듯”(56) 빌리의 눈을 노려보며 거짓말을 한다. 평소에 하사관님을 좀 “색다른”(queer, 47) 정도로 여기고 있던 빌리는 너무 큰 충격에 “관통당하고 입막음 당한” “미성년자”(56)처럼 말을 못 잊고, 그런 빌리가 안타까워 반박을 해보라는 비어 선장의 요구에 “생매장당하고 있는 베스타 여신의 사제”(57)처럼 숨이 막히고 경련을 일으키다 팔을 들어 클레가트의 이마를 내려친다. 빌리의 키가 훨씬 컸기에 클레가트는 “서 있는 상태”(erectness, 57)에서 그대로 뒤로 넘어가 쓰러져버린다. 너무나도 노골적인 강간의 이미지를 통해 욕망과 폭력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 점도 흥미롭지만, 이 장면은 무엇보다 ‘법 너머의 폭력’을 천착했던 벤야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순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즉 벤야민의 이상이었던 순수한 수단으로서의 폭력, “목적 없는 수단성”이라는 역설적 형상으로서의 폭력”(아감벤 119)이 순수의 화신인 빌리가 행하는 죽음의

가격을 통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한 빌리가 그 어떤 법적 목적 없이 ‘순수한 수단’으로서만 현현하는 폭력은 따라서 클레가트의 법적/신화적 폭력과 대비되는 순수하고도 신적인 폭력이다. 벤야민은 다음과 같이 두 폭력을 대비시킨다.

신화적 폭력이 법 정립적이라면, 신적 폭력은 법 파괴적이다. 전자가 경계를 설정한다면 후자는 경계를 파괴한다. 신화적 폭력이 죄책감과 응징을 가져온다면, 신적인 힘은 오직 속죄할 뿐이다. 전자가 협박한다면, 후자는 내려친다. (249)

If mythic violence is lawmaking, divine violence is law-destroying; if the former sets boundaries, the latter boundlessly destroys them; if mythic violence brings at once guilt and retribution, divine power only expiates; if the former threatens, the latter strikes. (249)

빌리를 교수대로 이끈 클레가트의 모함이 ‘치안’이란 이름 아래 무고한 죽음이란 ‘응징’을 낳았다면, 빌리는 아무 목적 없이 ‘내려치는’ 순수한 폭력을 통해 치안의 부당함을 드러내고 신적 정의를 상상하게 해준다. 「폭력에 대한 고찰」에서 아렌트(Hanna Arendt)는 “논쟁이나 변명의 여지 없이, 결과도 생각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정의의 저울을 바로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거짓으로 증언한 클레가트를 죽인 빌리 버드를 그 “고전적 예”(24)로 괄호 안에 짧게 언급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렌트의 폭력 옹호는 “결국 수단이나 목적의 정당성 개념을 재확인시키는 폭력 개념”(한광택 46)에 머물 뿐이다. 빌리의 클레가트 살해를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정당방위’로 소극적으로 해석하기보다, 클레가트의 법적 폭력을 파괴하는 신적 폭력의 현현으로 볼 때 그 의미가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¹²⁾

4-2. 비어 선장과 빌리: 폭력과 퀴어 유포피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는 폭력의 장면들은 빌리의 교수형이 확정되는 즉결심판, 그리고 이 소설의 절정이라고 할 빌리의 교수형 장면이다. 즉결심판관은 갑판사관, 함대부관, 항해장 세 명으로 구성되고 비어 선장은 사건의 유일한 증인으로 참석하는데, 이런 기이한 사건 발생 시 본 함대에 합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독에게 맡겨야 하는 상례를 무시한 점, 그리고 판관을 만만한 부하로 선장이 직접 선발한 점에서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형식적 절차를 밟으려는 선장의 의도가 드러난다. 이렇게 예외적인 사건을 군법의 기계적이고 즉각적인 적용의 대상으로 처리하려는 비어 선장은 어떻게든 “예외상태를 법률의 맥락 속에 기입”(아감벤 68)하려는 슈미트의 주권자를 닮아있다. 아감벤에 따르면 주권자는 본질적으로 모순적이라 “현실에 대한 효과적인 규범화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아노미의 지대를 법 속에 도입하는”(75) 모습을 보인다. 판결을 망설이는 심판관에게 비어는 유창한 연설로 사형판결을 종용하는데, 비어 선장이 주장하는 결정의 세 가지 근거는 첫째, 군인은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가 아니므로 군법만 따라야 하고 둘째, 여성스러운 심장 대신 냉정한 머리를 따라야 하며 셋째, 개인의 양심보다 제국의 양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심판관의 이어지는 반박에도 불구하고 비어는 결국 ‘예외상태’를 강조하며 그의 뜻을 관철하는데, 이때 예외상태란 아감벤이 “법률 없는 법률의 힘(따라서 법률-의-힘)”(79)이라 부르는 주권자의 권위에 의해 결정된다. 주권자로서의 비어가 이끄는 군사주의(militarism)와 사형제도 역시 벤야민이 법적/신화적 폭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폭력비판론』에서 벤야민은 특히 사형제도의 목적이 “법의 위반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정립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생과 사를 결정짓는 폭력행사를 통해 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새롭게/재확인(reaffirm)”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242).

클레가트의 죽음 이후 가시화되는 비어 선장의 동성에 욕망은 빌리가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 단둘이 가진 “밀실의 대화”(76)에서 절정에 이르나, 정확히 어떤 “열정”이 오갔고 왜 선장이 빌리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을 수도 있는지”(72)에 대해서는 자세

히 그려지지 않는다. 다만 두 인물이 밀실에서 나는 “너무도 진귀해 보통사람은 이해 못 할 자질”(71)을 누르기 위해 비어 선장이 법적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아 그 욕망의 압도적 잠재력을 역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정진만은 이같이 중요한 “공백”의 순간을 라캉의 용어를 빌어 “빌리와 비어가 자신들의 법(대타자)이 온전하지 않고 결손을 지녔다는 것을 자각하는 ‘환상 가로지르기’의 순간”(802)이라 부르며, 이것을 계기로 두 인물의 관계가 폭력적인 법적 관계에서 “법의 한계 바깥에 있는 무한한 사랑”(803)으로 변한다고 한다. 이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되 폭력에 법적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둘의 사랑이 “타자를 인정하는 ‘아가페’”(정진만 806)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로스’적 면모도 넘치게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하려 한다. 즉 빌리의 사형이라는 법적 폭력이 선상 반란(과 이에 중첩되는 동성애 확산) 차단이란 치안의 목적을 그야말로 귀어하고도 에로틱한 방식으로 벗어나 혁명적 폭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수형 준비 완료를 “첫날밤”(consummation)이 임박했다고 표현하고, 빌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뭇가지를 떠나는 새처럼 “비어 선장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80)이라고 낭랑하게 외친다.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반향을 낳아 배 위의 모든 사람이 빌리를 ‘그들의 눈과 마음에 담아’ 똑같은 말을 외치며 벤야민의 유토피아적 순간, “절대로 전유되거나 법질서화될 수 없는 선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세계의 상태”(아감벤 124)를 엿보게 해주고 있다.¹³⁾

빌리가 클레가트를 내려친(strike) 행위가 순수한 신적 폭력의 구현이었다면, 노동자의 “파업”(strike) 역시 벤야민이 ‘순수한 수단’으로 작동해 유토피아로 향하는 혁명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믿는 것이다(235). 벤야민은 파업을 두 단계로 나누며, 첫 단계는 노동조건을 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폭력적이고 법 정립적일 수 있으나, 두 번째 단계는 국가/법의 영역에서 분리된 새 노동형태를 따르기만 하면 되기에 격렬한 혁명이라기보다 완성을 위한 첫날 밤 치르기(consummates, 246)에 가깝다고 표현한다. 빌리의 클레가트 가격이 파업의 첫 단계를 연상시킨다면, 빌리의 교수형 장면은 파업의 두 번째 단계에 가깝다. 이 장면에서 일종의 초월적 결혼식, 일차적으로는 비어 선장에게 고백하듯 외치는 빌리와 선장의 결합이지만, 종국에는 빌리

의 “목소리 전류”에 감전되어 “공감의 메아리”(80)를 울리는 모든 선원과 선장의 결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평등한 동성[애]적 욕망에 기반한 이 결혼식은 이렇게 파업의 마지막 단계이자 유토피아를 완성하는 첫날 밤의 은유와 통하며, 혁명적 폭력이 퀴어 유토피아로 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은형 역시 허버트(Walter Herbert)를 인용하며 이 장면이 드러내는 “혁명의 가능성”(301)을 언급한다. 여기서 혁명이 비어가 상징하던 “인위적 위계질서”가 “자연의 광경과 소리”로 대체되며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는 “민주적 충동”(301)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면, 이러한 충동이 ‘미남 선원’을 향한 동등하고도 보편적인 욕망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또한 상기해야 한다. 즉, 이 혁명은 퀴어 유토피아를 향한 열망의 발현이다.

5. 맺음말

「유토피아와 이데올로기의 변증법」이란 부제가 붙은 『정치적 무의식』의 결론 장은 “문명의 기록치고 야만의 기록이 아니었던 것이 없다”(369)는 벤야민 글의 인용으로 시작한다. 이 명제를 통해 제임슨(Fredric Jameson)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소위 이데올로기적 텍스트와 유토피아적 텍스트 경계의 모호함이다. “겉보기에 대단히 순수하며 ‘삶을 고양시키는’ 정전의 걸작들조차도 어두운 이면이 있다”(393)는 것인데, 제임슨은 이렇게 불편한 벤야민의 진실을 그래도 직시해야 함을 역설한다. “예술 텍스트의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유토피아적 기능을 동시에 인식하는 일”이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실천”(393)이기 때문이다. 제임슨이 진솔하게 인정하고 있는 예술의 이중성은 19세기 미국 문학의 최고 정전작품 중 하나라고 할 『벌리 버드』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소설의 유토피아적 측면, 즉 작품 속을 은밀하게 유평하는 동성애 욕망이 퀴어 유토피아의 짧은 순간들을 엿보게 해주지만, 뭉클은 그러한 욕망을 품은 세 주인공을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모조리 처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즈윅의 글 제목이 「『벌리 버드』 : 동성애 그 이후」(필자 강조)인 이유도 이 소설이 동성애 정체

성이 막 출현한 19세기 후반에 이미 “동성애자 집단학살”(128)이라는 그들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예술의 존재 가치의 전면적 부정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멜빌 소설의 표면적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함의되어 있는 랑시에르식 문학의 민주주의와 벤야민의 유토피아는 여전히 드러낼 가치가 있다는 것이 본 글의 결론이다. 『불화』의 마지막 장인 「허무주의 시대의 정치」에서 랑시에르는 “합의 체계”(191)로서의 정치를 배격하며 정치란 “사회의 몫과 부분들에 대한 썸이, 몫 없는 이들의 몫의 기입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되는 경우”(189) 비로소 출현함을 강조한다. 이어 기존 질서나 현실을 이루는 합의가 근본적 계산 착오임을 깨닫기 위해 정치‘철학’이 필요하다며 정치철학의 윤리적 책무를 일깨운다. 랑시에르에게 철학은 “애도의 사상”이자 “윤리라는 이름 아래... 악, 곧 목가적 합의의 어두운 이면을 이루는 인간의 비인간성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206) 것이다. 『빌리 버드』 역시 문학적 은유를 통해 철학적 애도를 수행한다. 윤조원이 지적하듯, 이 소설의 중첩되는 서술적 결말을 통해 “[퀴어]대상이 제거된 후에도 제거되지 않는 [퀴어]욕망이 자아내는 애도의 의미작용”(167)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멜빌의 소설은 합의에서 배제되었거나 빠진 것들에 대한 반성적이고도 윤리적인 사유를 통해 감성학/미학과 정치, 아이스테시스와 로고스를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제임슨이 정의한 정치적 실천으로서 『빌리 버드』의 퀴어 정치학 읽기가 그 의의를 획득한다.

Notes

- 1) <www.britannica.com/biography/Jacques-Ranciere> 참조.
- 2) 『불화』의 영문판인 *Disagreement: Politics and Philosophy* (1999)를 참조하였으나, 한글 번역은 프랑스어 원문을 번역한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 한글판을 따름.
- 3) 더 쉬운 이해를 위해 민중봉기를 다룬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려보자. 주인공이 열변을 토하는 배경에 수많은 ‘민중’이 함께 하지만, 이 엑스트라들은 대사도 없이 화면을 채울 뿐이다. 랑시에르식으로 말하면, 인간의 언어(로고스)가 아닌 동물의 소음(아이스테시스)을 내는데 그치는 몫 없는 데모스에 불과하다. 평등이 평등과 불평등으로 이루어졌듯, 민중도 민중과 데모스로 이루어져 있다는 계산착오의 예다.

- 4) 영어로 contention, 프랑스어로 *le litige*. ‘분쟁’이라고도 해석되나, 원문에 합의된 권리를 위한 ‘법적 다툼’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계쟁이 더 나은 번역이라 여겨진다.
- 5) ‘아이스테시스’는 랑시에르가 현대예술의 특정한 미적 경험으로 굳어져 버린 미학(aesthetics)과 구별하기 위해 쓰는 비슷하지만 보다 광의의 용어이다. 아이스테시스의 보다 역사적이고 유물론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는 *Aisthesis* (2013) 참조.
- 6) 『불화』에서 정치가 ‘공정한 분배’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통념을 배격하듯, 랑시에르는 문학의 정치가 흔히 생각되는 작가의 정치가 아님을, “작가가 자신이 사는 시대에서 정치적 또는 사회적 투쟁을 몸소 실천하는 참여를 의미하지 않”으며 “문학이 그 자체로 정치행위를 수행하는 것”(9)임을 강조한다.
- 7) 오해(misunderstanding)는 프랑스어 *le malentendu*를 번역한 것이며, 한 번역자는 랑시에르의 주요개념인 불화, 불일치(*le disensus*), 오해, 계쟁이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됨을 지적하기도 한다(랑시에르; 2011, 51).
- 8) 대표적으로 김은형은 클레가트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외국인 혐오증’과 ‘동성애 혐오증’을 기초로 제국주의 위계질서를 세운 벨리퍼턴트 호에서 외국인 징집군인이자 동성애자인 그를 설명할 단어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제대로 설명하기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설득력 있게 지적한다(291).
- 9) 고대그리스·로마 조각상을 보며 품었던 아름다운 남성애에 대한 멜빌의 욕망, 그리고 빌리 버드가 그러한 조각상처럼 동성애적 시선에 “안전한 관람”(195)을 제공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David Greven, “Melville and Male Beauty: Antinous, the Apollo Belvedere, Billy Budd”(186-97) 참조.
- 10) “미학적 차원에서 클레가트는 빌리의 순수함이 가진 매력, 용감하면서도 스스럼없는 순수성의 성질을 알아봤고, 기꺼이 함께 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의 약을 감출 수는 있었으나 없앨 수는 없었고, 선이 뭔지는 알았지만 스스로 그렇게 될 수는 없었다”(37). 『실낙원』의 사탄을 연상시키는 부분이기도 하다.
- 11) 21장은 “누가 무지개에서 자색이 끝나고 오렌지색이 시작하는 지점을 선을 그을 수 있겠는가?”라는 화자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화자는 이어 정상과 정신이상, 신중함과 단호함이 때때로 구별되기 어려운 것임을 강조하며 비어의 고뇌를 설명한다.
- 12) 빌리의 폭력적 면모보다 빌리를 예외상태에 놓인 희생자, 즉 호모 사케르로 보며 작품을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로는 William Spanos (2011) 참조.
- 13) ‘에로틱’한 혁명과 평등화의 또 다른 예로, 세즈윅은 교수형 장면에서 “수직으로 딱딱하게”(80) 서 있는 비어 선장과 빌리의 시신에 사망 시 일어나는 발기가 이상하게도 부재한 점을 들어 두 인물의 호환성을 지적하며 『빌리 버드』를 지배하는 혼욕과 욕망의 미묘한 접합을 분석한다(125-26).

인용문헌

- 김은형. 「『빌리 버드』 - 제국의 위계질서, 그리고 민주적 지도력의 가능성」. 『영어영문학』 62권 2호, 2016, pp. 283-307.
- 윤조원. 「멜빌의 청년들: ‘퀴어’한 결혼과 남성적 성장의 서사」. 『영미문화페미니즘』 20권 2호, 2012, pp. 149-73.
- 정진만. 「법/초자아에서 사랑으로 - 허먼 멜빌의 『빌리 버드』 에 나타나는 법, 폭력, 그리고 사랑의 가능성」. 『영어영문학』 57권 5호, 2011, pp. 787-812.
- 한광택. 「예외의 폭력, 공감의 기억, 구원의 윤리: 멜빌의 『빌리 버드』」. 『안과 밖』 38호, 2016, pp. 39-57.
- 프레데릭 제임슨. 『정치적 무의식: 사회적으로 상징적인 행위로서의 서사』. 이경덕·서강목 옮김, 민음사, 2015.
- 자크 랑시에르. 『무지한 스승: 지적 해방에 대한 다섯 가지 교훈』. 양창렬 옮김, 궁리, 2008, 2016.
- _____. 『불화: 정치와 철학』. 진태원 옮김, 도서출판 길, 2015.
- _____. 『문학의 정치』. 유재홍 옮김, 인간사랑, 2011.
- _____. 『감성의 분할: 미학과 정치』. 오윤성 옮김, 도서출판 b, 2008.
-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김향 옮김, 새물결, 2009.
- Arendt, Hanna. “Reflections on Viol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3, no. 1, 1969, pp. 1-35.
- Benjamin, Walter. “Critique of Violence.” *Walter Benjamin: Selected Writings, vol. 1*, edited by Marcus Bullock and Michael Jennings, Harvard UP, 1996, pp. 236-52.
- Greven, David. *The Fragility of Manhood: Hawthorne, Freud, and the Politics of Gender*. The Ohio State UP, 2012.
- Halberstam, Judith. *In a Queer Time and Place: Transgender Bodies, Subcultural*

Lives. NYU P, 2005.

Melville, Herman. *Billy Budd*. The Electronic Classics Series, edited by Jim Manis, Web.

Rancière, Jacques. *Aisthesis: Scenes from the Aesthetic Regime of Art*. Translated by Zakir Paul, Verso, 2013.

_____. *The Politics of Aesthetics: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Translated by Gabriel Rockhill, Bloomsbury Academic, 2004.

_____. *Disagreement: Politics and Philosophy*. Translated by Julie Rose, U of Minnesota P, 1999.

Sedgwick, Eve Kosofsky. “Billy Budd: After the Homosexual.” *Epistemology of the Closet*, U of California P, [1990] 2008, pp. 91-130.

Spanos, William. *The Exceptionalist State and the State of Exception: Herman Melville's Billy Budd, Sailor*. The Johns Hopkins UP, 2011.

Abstract

The Queer Politics of *Billy Budd*

Soo Yeon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amine queerness embedded in Herman Melville's *Billy Budd* in light of Jacques Rancière's political philosophy and Walter Benjamin's critique of violence. While Melville's novella has been amply discussed from diverse perspectives of psychoanalysis and 19th century American history, for example, the queer aspect of the novella remains underrepresented. Viewing queerness as "nonnormative logics and organizations of community... embodiment, and activity," not confined to sexual orientation, my paper hopes to illuminate the ways the evasive homoeroticism in the novella seeks to be "vocal and visible." The first half of the paper reads this queer desire to be heard and seen using Rancière's concepts, such as "disagreement," "miscount," and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Rancière's notion of politics as disagreement and contention, I argue, is felicitously embodied in *Billy Budd's* queerly defiant moments invoked by the "part that has no part" in society. In the second half, my essay adds to prior criticism on *Billy Budd* and violence by analyzing the way that Billy's death, previously read as a tragedy resulting from Vere's "lawmaking and law-preserving" violence, transforms into "divine violence" which leads to a Benjaminian revolution toward a queer utopia.

Key Words: *Billy Budd*, queerness, Jacques Rancière, Walter Benjamin, violence.

논문접수일: 2020.09.16

심사완료일: 2020.10.10

게재확정일: 2020.10.26

이름: 김수연

소속: 한국외대 영미문학문화학과 부교수

이메일: sooykim@hufs.ac.kr

